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12월 27일(주일) 제1325호



사진은 지난해 송구영신예배.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송구영신예배 12월 31일 오후 9시, 11시
신년예배 1월 1일 오전 9시 30분, 11시 30분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및 CGNTV 생중계

2020년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를 표어로 내걸고 힘차게 달려온 온누리교회가 송구영신예배 및 신년예배를 드린다. 송구영신예배는 12월 31일(목) 오후 9시, 오후 11시에 드린다. 신년예배는 2021년 1월 1일(금) 오

전 9시 30분, 11시 30분에 드린다.

송구영신예배 및 신년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린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실황을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TV에서 생중계한다. 말씀은 이재훈 담임목사

가 선포한다.

2020년 온누리교회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한 기도를 했다.

2021년 온누리교회 표어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다. 히브리서 10장 23~25절 말씀을 바탕으로 소망을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서로가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탬 예정이다.

2021년 온누리교회에서는 1월~2월 선교헌금 작정, 목회사관학교, 3월 순장영성수련회, 고난주간 새벽예배, 4월 부활주일, 5월 어린이주일, 부모맞춤전도집회, 6월 마리아행전, 7월故 하용조 목사 10주기 추모, 9월 이주민을 위한 하베스트 집회, 10월 추수감사주일 및 창립36주년 기념주일, 11월 임직식, 12월 장로장립식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선교헌금작정 연기

1월 31일과 2월 7일 예정

2021년 선교헌금작정 일정이 연기됐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 2021년 선교헌금작정은 1월 31일과 2월 7일 실시할 예정이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선교헌금작정을 잠시 미루게 됐다”고 밝히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양해를 당부했다. 덧붙여 “코로나19로 힘겨운 상황속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잊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 이레 기도회

2021년 1월 2일까지 CGNTV, 유튜브, Zoom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 이레 기도회(이하 세 이레 기도회)가 이제 한 주박에 남지 않았다. ‘평안하라 강건하라’를 주제로 지난 12월 14일(월)부터 시작된 세 이레 기도회는 매일 새벽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CGNTV,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Zoom(썸)으로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기도회 실황을 생중계하고 있다. 유튜브 라이브에는 매일 평균 5천 명 정도가 접속해

서 시청하고 있고, Zoom으로는 약 2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세 이레 기도회에서는 한국의 명설교가 17명이 설교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28일(월)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29일(화)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30일(수) 주중중 목사(주안장로교회), 31일(목)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1월 2일(토)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관련기사 4~5면).

26일까지 대학청년부 사랑애티움사역

대학청년부 ‘2020 사랑애티움’ 사역이 12월 26일(토)까지 이어졌다.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별로 섬기는 기관 일정에 맞춰 사역을 이어갔다.

대학청년부 사랑애티움 사역은 서울 시내 불우 이웃 및 차상위계층 가정을 방문해서 생필품을 나눠주

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대학청년부의 대표적인 겨울사역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각 교회와 기관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했다. 기관으로 물품을 보내거나 최소 인원만 이웃들의 가정을 방문했다.

/ 홍하영 기자

예배 시간 변경

1월 2일(토)부터 토요일예배 시간이 변경된다. 서빙고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5시(청년부), 양재 오전 9시, 오후 4시, 오후 6시(청년부)다.

1월 4일(월)부터는 새벽기도회가 통합된다. 평일 오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CGNTV,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Zoom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기부금 영수증 온라인 발급

온누리교회 기부금 영수증을 비대면으로 발급한다.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이메일과 전화(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메일 신청은 bess0417@naver.com으로 하면 되고, 전화신청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하면 된다.

문의: 02-3215-3265(3264, 3618, 3253)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기독교인은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서 진화론의 허구성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현대의 자연주의자들은 과학을 '직접 관찰하거나 실험적 재현을 통해 자연의 원리를 밝

혀내는 학문'으로 정의한다.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의해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이 과학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정의에 합당한 것을 실험과학(operational science)이라 부른다. 이에 반해 과거에 신학이나 철학이 다루어 왔던 우주와 생명의 기원은 현재 시점에서 다시 관찰할 수 없고, 실험적으로 재현할 수 없다. 비록 과학의 대상인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역사과학(historical science)이라는 이름으로 다루고 있지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존재의 기원을 다루는 형이상학이 분명하다.

현대의 인본주의 사회에서 진화론은 패러다임화 되어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다. 처음에는 다윈의 종의 기원에 근거해서 종 분화를 설명하던 생물학 분야에서 시작하였다. 이후 종 분화의 증거라는 화석과 지층의 연구를 위해 지질학이 개입되었으며, 우주와 지구의 기원을 다루는 천체물리학이 개입되어 뼈대를 이룬 후 모든 자연과학으로 확산되어 다학제적인 패러다임을 형성하였

다. 이러한 이유로 한 분야 전문가가 진화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할지라도 다른 분야에서 문제 제기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패러다임은 유지된다.

진화의 패러다임에서 진화라는 용어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예일대학교 생물학 교수인 톰슨은 현대의 생물학에서 진화라는 용어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가리킨다고 지적한다. 시간에 따른 변화, 공통 조상으로부터의 종 분화, 생물에 변화를 일으키는 자연의 메커니즘이다.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물의 형태가 변화되는 현상을 진화라고 부른다. 이것이 생물학이 아닌 다른 학문에서도 진화를 사용하는 이유이다. 진화심리학, 진화경제학, 사회진화론, 정치의 진화 등 생물학과 전혀 무관한 곳에서도 진화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한다. '변화'란 단어로 바뀌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진화라는 상투어를 사용해서 진화론의 헛된 권위에 편승하려는 알뜰한 상술에 불과하다.

둘째, 공통 조상으로부터의 종 분화를 의미하는 진화이다. 다윈이 그의 저서 <종의 기원>에서 주장한 진화의 개념이다. 다윈은 교배를 통해 사육하는 동물이나 재배하는 식물에서 같은 종 내에서 특이한 기능이 강화된 변종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았다. 예를 들면 우유를 많이 분비하는 소, 털을 많이 생산하는 양, 섬유소 함량이 높은 면화 등을 통해 시간만 충분히 주어지면 다른 종으로 변할 거라고 추정한 것이다. 생물학은 암수 교배를 통해 생식 가능한 후손을 낳을 수 있

는 생명체들을 같은 '종'이라 규정한다. 우리는 다윈이 관찰한 같은 종 안에서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의미하는 소진화(진정한 의미의 진화가 아님)와 종의 장벽을 넘어서는 대진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우유를 많이 분비하는 품종이 나온다 해도 소는 여전히 소이며, 양은 여전히 양인 것이다. 양에서 소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의 대진화는 관찰된 적도, 증거도 없다. 다윈 스스로도 <종의 기원>에서 종의 장벽을 뛰어넘는 대진화의 화석증거가 없는 것이 자기 이론의 한계임을 인정하였다. 이후 대진화의 증거라고 몇몇 중간화석이 제시된 적이 있으나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셋째, 생물에 변화를 일으키는 자연의 메커니즘을 진화라고 말하는 경우다. 돌연변이와 적응에 의해 급격히 새로운 종이 생성된다는 신다윈주의적 진화를 의미한다. 다윈의 점진적인 종 분화 모델에서 중간화석이 없는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스티븐 굴드가 1972년 제안한 것이 돌연변이설이다.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발생한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생명체의 종 분화가 급격히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레닌이 폭력혁명에 의한 사회변화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델로 선호했던 주장이다. 그러나 어떤 종 분화도 돌연변이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난 큰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돌연변이는 거의 모든 경우에 생존에 불리한 질병을 유발하며, 살아남기에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진화론은 첫 생명체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윈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첫 생명체는 창조주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국가의 소련 과학원과 인본주의 영국의 학자들이 서로 공명하면서 생명이 무생물로부터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자연발생설을 주장한다. 스스로 세포분열을 통해 증식이 가능하면서 살아있으려면 가장 간단한 생명체라도 1,500개 정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포분열을 위해 DNA 정보를 2배로 복제하려면 단백질인 효소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단백질은 DNA에 기록된 유전정보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 프랜시스 크릭이 제시한 분자생물학의 중심사상이 분명히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생명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DNA와 RNA 단백질 분자들이 그것도 최소한 1,500개 단백질에 대한 것들이 한꺼번에 세포라는 구조물 속에 존재해야 한다. 진화론자들이 자연발생설의 근거라고 제시하는 밀러-유리의 실험에서는 자연계에 없는 D-형 아미노산이 몇 개 생성되었을 뿐이다. 이것은 별판에서 발견한 벉돌 한 장으로 그곳에 있었던 궁전의 모양과 그 궁전에 살았던 사람과 궁전의 운영방식까지 유추하는 것과 같다. 이런 가정과 유추를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훨씬 큰 믿음을 필요로 한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맹목적인 믿음이다.

묵상: 기독교인으로서 진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갈등이 없는가?

가정문제, 이렇게 해결합시다!

아버지의 권위와 아내의 역할

21세기 가장 큰 문제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와 권위가 없어진 것이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은 삶의 경계를 세우지 못하고 안정감을 상실한 채 공허와 혼돈 속에서 방황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폭력과 성, 게임중독과 약물중독에 젖어 들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경험하며 자라야 한다. 아버지의 권위를 경험시킨다는 것은 아버지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공의의 대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아버지는 높은 수준의 사랑과 통제를 베푸는 존재임을 경험시켜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서 아버지를 밀어내고,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경험시키고 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부드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어머니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방근무를 하다가 주말에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에서 왕따 당하는 느낌을 받는다.”

어느 아버지의 고민이다. 자신이 집에 돌아오면 자녀들이 슬슬 자리를 피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것 같다고 한다. 집에서 가족과 어울리지 못하고 텅 빈 방에서 혼자 TV만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버지가 자녀들의 목자가 되고, 가장으로서 존경의 대상이 되려면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경험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어머니들은 종종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남편을 탓하고 무시하며 무의식중에 자녀에게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소개한다. 자녀들과 세력을 합해 아버지를 내몰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시가 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줘서/생장고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줘서/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줘서/아빠는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철부지 초등학생의 시라고 하지만 그 속에 현대 가정의 문제가 드러나 있다. 가정에 아버

지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모든 것을 어머니가 주도하는 가정으로 바뀐 것이다. 부부관계도 없고, 오직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만 있다. 가슴 아픈 일이다. 어머니로서 아버지의 존재를 자녀들에게 긍정적으로 경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시는 줄 아니?”라는 엄마의 말 한 마디가 자녀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큰 자부심을 심어준다.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녀들은 빠르게 자랄 확률이 매우 높다. 요즘 아버지들이 바빠서 아이들 얼굴 보기도 힘들고 모든 일을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작은 일들은 어머니가 결정해서 처리해서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러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은 반드시 아버지와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가정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아빠와 의논해보도록 할게”라면서 최종 결정권자가 아버지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의 잘못으로 크게 야단 칠 일이 있을 때

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하는 것이 좋다. 아버지들은 대부분 감정을 추스르기 어렵고, 꾸중하고 나서 뒤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아버지 얼굴 보기도 힘든데 아버지에게 부정적인 역할만 맡기면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권위를 긍정적으로 경험하기 힘들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피하게 될 수밖에 없다. 아내가 가족관계를 잘 살피면서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내가 슬기롭게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남편은 그런 아내를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런 모습을 보며 자녀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아버지와 긍정적인 관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면만 바라보면 성탄의 올바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성탄의 모습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시(messy)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성탄이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두 살 이하 사내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지 2년이 되지 않은 영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을에 얼마나 큰 충격과 슬픔이 임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두려워서 제거하려는 타락한 세상 권력자에 의해 일어난 범죄입니다. 헤롯도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신의 위치를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타락한 통치자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우호적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타락한 권세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와 권세와 부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잔인하고 사악한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당시 유대 통치자 헤롯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분봉왕 헤롯과 다른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헤롯은 예수님 당시 로마로부터 ‘대왕’, ‘대제’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헤롯은 외교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에돔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로마로부터 인정 받아 40년 동안 그 땅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 나쁜 정치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정부와 유대 사이에서 나름대로 유대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려고 노력한 것처럼 보이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았고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매우 교활했고, 여러 얼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잔인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고,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모두 죽였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구성원 절반 이상을 처형했습니다. 300여 명의 궁정 관리들을 즉석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장모, 아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죽어갈 때 예루살렘의 모든 리더들과 저명한 사람들을 소집해 놓고 자신의 죽음과 동시에 함께 죽이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헤롯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며 어디서

태어나시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헤롯에게 매우 위협적인 질문이었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을 보면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입니다. 헤롯은 즉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말한 대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으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자신도 경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아기를 찾으면 제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냥 돌아가자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서 태어난 두 살 아래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헤롯이 학살을 자행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헤롯이 학살을 자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헤롯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악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을 잘못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자리를 탐내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헤롯의 왕좌에 앉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헤롯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헤롯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을 대면해야 합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한편으로는 알아보고, 또 한편으로는 오해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한편으로는 올바르게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거절했던 이유는 그가 악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가로막고 제거하려는 무서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롯처럼 성탄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분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을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이 빼앗아간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빼앗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 자유, 평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헤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베들레헴에 엄청난 영아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에 일어난 수많은 비극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벌어진 엄청난 비극이 역사에서 되풀이되어 왔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마 2:15).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호 11:1).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의 엄청난 대학살을 피하기 위해 요셉이 이집트로 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집트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집트에 사시다가 다시 오신 사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해 구원받은 사건과 연결됩니다. 헤롯의 행동을 보면 구약 시대 바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바로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번성함을 보고 히브리인들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영아 대학살이 이집트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갈 대상자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에 의한 영아 대학살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건질을 받아 인류의 출애굽과 모든 이들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주의 나라를 이루도록 보냄을 받은 이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넘겨주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과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어떤 세력도, 어떤 통치자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또한 헤롯으로 인하여 영아들이 학살된 사건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녀를 잃고 울고 있구나. 자녀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도 거절하는구나!’”(마 2:17-18).

라헬은 창세기 인물입니다. 라헬은 둘째 아들 ‘베노니’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었습니다. 베노니가 우리말로 베냐민이 됐습니다. ‘내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 당하고, 수많은 자녀들이 죽어가는 슬픔을 라헬의 슬픔에 비유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창세기에 자식을 잃은 라헬의 슬픔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멸망한 슬픔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헤롯에 의하여 자녀들을 잃은 어머니들의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슬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들의 악을 통해 이루어진 슬픔입니다.

슬픔 가득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슬픔 가득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의 엄청난 저항과 대적과 위협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승리는 잠시뿐입니다. 헤롯도 죽었습니다. 바벨론도 멸망했습니다. 악한 원수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모두 죽음 앞에서 패배자일 뿐입니다. 역사상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던 이들은 모두 죽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악한 권세도 예수님의 오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슬픔 속에 오셨습니다. 슬픔의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성탄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큰 슬픔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어떤 악의 위협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신 사건입니다. 헤롯으로 인한 큰 슬픔 속에 임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이 역사적 재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제거하려는 우리 안의 헤롯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생명만이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슬픔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바로 깨닫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국경과 지역을 초월한 ‘세 이레 기도회’

독일 원종호 장로, 대전 이나비 집사 기도회 참가기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 이레 기도회(이하 세 이레 기도회)가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지났다. 세 이레 기도회는 매일 오전 6시 CGNTV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Zoom(쑈)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 이레 기도회는 국경과 지역을 초월하고 있다.

원종호 장로(강동 온누리교회)는 지금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다. 9월 말 직장일로 독일에 갔다. 몸은 독일에 있지만,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세 이레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새벽 6시지만, 독일은 밤 10시다.

“온누리신문에서 세 이레 기도회 한다는 소식을 보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Zoom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현장감은 물론이고,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소속감이 들어서 더욱 좋습니다. Zoom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동기 장로님들이 반갑게 인사해주셔서 기쁩니다. 세

이레 기도회 덕분에 하나 되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원 장로는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세 이레 기도회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온누리교회만의 기도회를 뛰어 넘어 여러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장(場)이 마련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세 이레 기도회에 참여한다면 24시간 기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성도들이 다 같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나비 집사(대전 온누리교회)는 대전에서 세 이레 기도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 집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흐트러질 수 있는 몸과 마음을 다잡기 위해 일부러 Zoom으로 참석하고 있다. 매일 새벽 옷을 갖춰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처럼 바른 자세로 참가하고 있다.

“처음에는 편하게 예배를 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유튜브나

CGNTV로 세 이레 기도회에 참가하려고 했습니다. Zoom으로 참가하면 제 모습이 다른 분들게도 보이니까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Zoom으로 참가하면 성도님들을 화면으로 만날 수 있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느껴져서 참 반갑더라고요. 제 예배 태도나 마음도 다잡을 수 있어서 좋고요. 부담스러웠던 마음이 지금은 반가움, 기대감, 행복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세 이레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나비 집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기도제목이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저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교회임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 정현주, 홍하영 기자

12월 19일(토)

마리아야 나오라

요한복음 11:30~32

김경진 목사(소망교회)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에게 오시고, 마리아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리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아마 베다니와 멀지 않은 곳에 계신 예수님이 빨리 달려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도 예루살렘에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을 모두 치렀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베다니로 들어오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반면 마리아는 집에 가만히 머물렀습니다(요 11:20).

마르다는 신앙의 모범생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21절)라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27절)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실망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와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시련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깊은 실망감으로 방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마리아를 찾아와 “예수님께서 너를 찾으신다”는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통해 마리아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실망하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 “마리아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방, 불신의 방에 갇힌 마리아에

게 나오라고 손짓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어 돌무덤에 갇힌 나사로를 향해서만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신앙의 무덤에 갇혀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도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며 울부짖습니다(32절). 예수님은 슬퍼하는 마리아를 보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십니다(요 11:35).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필요했던 순간 나를 찾아와주시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더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슬픔과 원망에 갇혀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집니다. 절망하고, 불신하고, 실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내가 와 있다. 그 절망의 방에서 나오라.”

12월 21일(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영적 친교

누가복음 1:39~45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 달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 수태고지를 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며 깜짝 놀라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엘리사벳 가정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눅 1:36~37).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을 만

나러 갑니다. 엘리사벳에게 가면서도 마리아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막막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당도해서 문안하자마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알아봤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눅 1:41~42).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자 마리아의 근심과

염려하던 것이 모두 사라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친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영적인 친교는 마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비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옴과 룯은 영적인 친교를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 힘든 상황을 함께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영적인 친교를 통해서 우정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붙들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영적인 친교를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커다란 재앙을 만난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담대하게 찬양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는 엘리사벳과의 영적 친교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변화시키

고 역전시키는 하나님, 기쁨과 희망과 승리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이전과 다른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성숙한 마리아, 강인한 마리아, 한 가정의 어머니에서 나라와 민족을 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명이 사람을 귀하고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엘리사벳은 누구입니까? 믿는 성도라면 도움이 필요한 마리아들을 살펴보십시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엘리사벳이 누구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영적인 친교를 통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 이레 기도회

✠ 12월 22일(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19~21

김은호 목사(오륜교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방역을 잘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강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어떤 책망도 하

지 않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한 여인에게도 평안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돈, 성공, 명예, 집값, 주가가 아닙니다. 평강입니다. 돈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평강한 것은 아닙니다. 돈과 환경이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평강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왜 평강일까요?

첫째, 현실적으로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코로나 19로 두려움 가운데 살고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둘째, 평강이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습니다.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결코 이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광야의 인생을 살면

서 모두가 평강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리는 감옥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스테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도 평강을 누렸습니다.

셋째, 평강을 가진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평강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평강을 가진 자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고, 평강을 누리는 자만이 세상에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평강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 12월 23일(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2:46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올해는 교회에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함께 모여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성탄절을 맞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하나가 되어 있는지가 성탄절 기쁨의 핵심입니다.

성탄절 기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46절a)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햇빛과 비

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이들은 그 빛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째,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에 어두운 것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정말 그렇게 느끼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의 허물을 말하거나 여러분을 죄인 취급할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화가 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알고만 있는 사람에게는 엄밀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햇빛보다 밝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갈증 길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사람들이

당연히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진정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의 삶입니다.

셋째, 기쁨과 사랑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더는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46절b).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는 죄 짓고 살지 않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의 분위기는 항상 밝습니다. 그 사람 안에 기쁨과 사랑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누구도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합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과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립시다.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합시다.

✠ 12월 24일(목)

진정한 극복을 위하여

마태복음 10:22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진 대로 순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19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적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했던 것들도 있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홍해를 만날 줄, 야말렉을 만날 줄, 광야 생활이 40년까지 길어질 줄, 가나안의 성들이 그렇게 견고하고 높을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얼마

나 많은 적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보다 훨씬 강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더 큰 고난이 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출애굽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관을 극복한 것도 있지만,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야 했고,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감당하도록 놔두셨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고 순응해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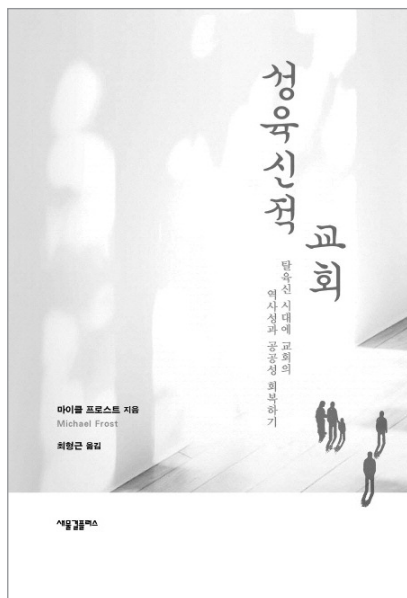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순응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느보 산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골 4:11~13). 압권은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극복하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고 자 하는 순응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비난과 코로나 19의 고통,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순응하는 방법을 터득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

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순응의 믿음을 터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극복의 비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답이고, 영원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불안, 두려움, 의심 등을 극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순응은 패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승리하는 비결임을 기억하십시오. 순응이 쓸려갈 때 우리는 궁극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딤’이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극복의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지만 힘냅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도 기쁨의 하루를 살아갑시다.



책 읽어주는 목사

탈육신 VS 성육신



〈성육신적 교회〉
마이클 프로스트 저 | 새물결플러스
| 17,000원

지난 3월 예배당 예배가 제한되던 시기 큰 위기의식과 갈급함에 다시 꺼내든 책이 있다. 〈성육신적 교회〉이다. 호주의 선교학자 마이클 프로스트가 2014년 이 책을 내면서 교회의 위기를 진단했다. 오늘날 세상에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 매우 이질적인 흐름이 있는데 바로 ‘탈육신(excarnation)’ 현상이다.

원래 ‘탈육신’은 몸에서 피부와 장기를 기술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고대에는 시체에서 뼈만 남기고 살과 장기를 제거하는 풍습이 있었다.

저자는 오늘날 다른 형태의 탈육신 흐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존적으로 육체에서 영혼을 분리시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포용하라는 요구가 점차 확대되는 것이다. 몸과 영혼을 분리하는 이원론, 육체적인 것은 가치가 적고 영적인 것만을 중시하는 영지주의적 사고, 모든 질서를 해체시키는 포스트모더니즘에 기반한다.

이 흐름은 인간의 실존과 세상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인간 삶의 감각과 경험이 경시된다. 저자는 이 관점으로 교회 안팎의 문화를 분석한다. 블로그, SNS, 소셜미디어는 해체되고 단절된 개념과 감각들을 강조한다. 미디어는 시공간을 급진적으로 압축 시킴과 동시에 비일관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구획하고 조립한다. 진짜 현실을 능가하는 가상현실은 잠깐의 경험을 끊임없이 맛보도록 유혹한다. 좀비와 흡혈귀가 강조되고, 온라인 게임과 포르노그래피가 유행하며, 구체적 경험보다 대리경험에서 만족감을 얻는 현상도 탈육신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탈육신 경향이 교회와 신앙을 해체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우리의 종교적인 삶이 몸으로 드리는 의례와 예배, 실천적 형

태들과 괴리되어 점점 더 머리에만 머물게 된다. 예전(禮典)과 경건의 시간이 간편화되고, 그 주된 의미를 상실한다. 선교에서도 구체화 되지 않은 접근 전략이 모색되고, 비성육신적 표현의 풍조가 나타난다.

저자는 탈육신적 경향을 철회하고 오늘날 우리 삶의 자리를 강조하는 성육신적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방식은 육신과 영혼을 구분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다. 인간의 감각을 느끼셨고, 현장으로 들어가셨으며, 삶의 패턴 전부를 함께 하셨다. 제자들에게 장기간 삶으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도제방식을 사용하셨다. 본질적으로 기독교적인 이상은 삶에 깊숙이 개입해서 복음을 실천하는 겸손한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코로나19는 세상과 교회에서 탈육신적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2020년은 역사상 유례없는 온라인 매체의 부흥을 이끌었다. 언택트 시대에 스마트폰과 인터넷 미디어는 신앙생활마저 온라인 문화 속으로 끌어당겼다. 영상으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며, 화상회의로 사역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각자의 신앙을 총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돌아볼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 공동체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함께 기도하

고 격려하는 성육신적 실천이 파편화된 위기에 처해있다. 선교와 사역도 이웃의 삶에 다가가 처지를 경청하는 장기적이고 내러티브적인 접근보다 효율적이고 단기적이며 비인격적인 접근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유혹 앞에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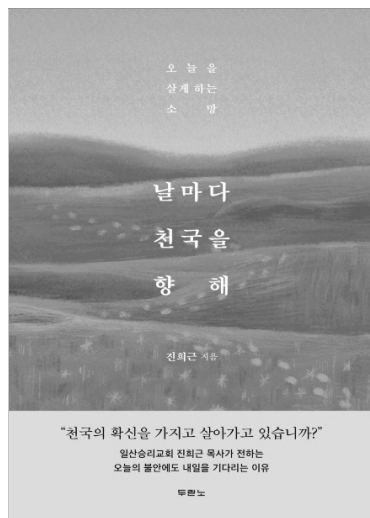
기술의 발전을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단편화된 사역 역시 선한 추진력에서 온 것이다. 관건은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과 실천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신비, 육체로 오셔서 거룩의 본을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의 본체를 기억해야 한다. 미디어에서 단편적인 정보의 환상을 분별하고, 존재와 내러티브를 강조해서 각 영혼에게 다가가고, 총체적 공감 능력을 끊임없이 계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나의 육신과 감각이 존재하는 오늘 여기에서 성육신적 실천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 건강한 생명을 주고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역동적인 헌신을 강조했던 저자의 수년 전 시각이 강력하고 새롭게 들리는 요즘이다.



변대섭 목사
(성북공동체)

두란노 신간

크리스천이 가야 할 길 천국



〈날마다 천국을 향해〉
진희근 저 | 두란노 | 13,000원

크리스천이 가야 할 길은 바로 천국이다. 그 여정이 어렵다. 길을 의심하고, 잃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한다.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따지듯 기도한다. 그런데 시련 기자와 물고기 배 속에 있던 요나는 밀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 〈날마다 천국을 향해〉 저자 진희근 목사는 어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가장 좋은 장소라고 강조한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때로 화려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은 어떨습니까? 가장 밀바닥인지라 더는 내려다볼 곳이 없으니 위만 바라봅니다. 두 눈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합니다.”

또한 진희근 목사는 천국을 바라보면 평강이 찾아온다고 말한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다음 날이 사형당하는 날인데 감옥에서 잠을 잤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천국을 향해〉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천국과 완성될 천국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한다.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 사이에서 신앙의 균형도 말한다.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이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시

‘질서’

삶은 섬기는 일
일은 예배하는 삶
일하며 살아가리
일을 통해 섬기고
진실한 삶이 예배이리

위아래 질서가 깨지면
이웃 관계도 무너지지
명성이 우상이 되니
갈채를 섬기게 되리
자책과 허무가 뒤따르리

처음이 바로 서면
모두가 회복되지
비교의 대상이 없어지고
시기와 다툼은 사라지리
탁월과 신실만 남게 되리



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 이모작을 돕는 '서초50+센터'가 지난 12월 21일 개관했다.

온누리복지재단, 서초50+센터 개관

50~64세 서울시민을 위한 센터

온누리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는 '서초50+센터' (서울시 서초구 염곡말길9)가 지난 12월 21일 개관했다. 서초50+센터 개관을 축하하는 행사가 12월 21일 온라인(유튜브)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개관식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신중년 5060세대를 위한 멋진 공간이 탄생해 기쁘다"면서 "서초50+센터로 준비해서 활기차고

멋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송영범 장로(온누리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인생의 전성기를 이루는 곳'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50+세대의 가치를 높여주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 개관한 서초50+센터는 50~64세 서울시민을 위한 센터이다. 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

을 지원하고자 '50+세대의 가치를 높여주는 진정한 파트너'라는 비전 아래 세워졌다.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1,309.76㎡) 규모로 교육실, 취미여가실, 북카페, 공유 사무실 등을 갖췄다.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50+세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좌,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문의: www.50plus.or.kr/sch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예수제자학교 간사 온라인 개강예배

2021년 예수제자학교 3월 개강

2021년 예수제자학교(JDS) 간사 개강예배를 지난 12월 19일(토) 온라인(Zoom)으로 드렸다. 예수제자학교 담당 목회자, 간사(스태프) 등 108명이 참석했다.

2021년 예수제자학교(JDS) 간사 개강예배는 조진호 장로 대표기도, 박종길 목사 말씀, 각 리더십 및 운영방안 소개, 중보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종길 목사는 '기억하지 않

고 잊었더라'는 주제로 "과거보다 힘든 상황이지만, 더 뛰어난 계획과 방법으로 이루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수제자학교(JDS)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했다.

2021년 예수제자학교(JDS)는 서빙고(주간반, 저녁반), 양재(주간반, 저녁반),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5개반이 열릴 예정이다.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22주 동안 운영된다.

문의: 02-3215-3625

예수 'Christmas Gift' 전시회

1월 4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

2020 예수 'Christmas Gift' 전시회가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6) 제3전시실에서 내년 1월 4일(월)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장애인들의 문화적 역량 개발과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서울시 장애인 직업재활문화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송영범 장로(온누리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예수 작가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서로 어렵게 작품들을 만들어냈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전시회에 방문하셔서 예수 작가들이 직업예술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역동적인 모습을 지켜봐주면 감사하



겠다"고 당부했다.

문의: 02-985-3609

/ 정현주 기자

화성M센터 레인보우스쿨 최우수기관 선정

이주민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화성M센터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 레인보우스쿨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레인보우스쿨은 이주배경·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다. 전국 22개 기관이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화성M센터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 레인보우스쿨은 지난 6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주배경·중도입국 청소년 43명을 선졌다. 화성M센터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 레

인보우스쿨에서는 주 5일 한국어, 영어, 수학, 미술, 등 교과 활동과 진로특강, 사회성 교육 등을 실시했다.

김정희 선교사(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장)는 "올해 코로나19로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주민 청소년들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선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NGO 더멋진세상 성탄 선물

네팔 HIV 감염아동에게 전달

NGO 더멋진세상이 네팔 HIV 감염 아동 60명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했다. 두툼한 겨울 외투와 성탄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소품 등이 담겨있다. 이번 성탄 선물은 네팔 HIV 감염아동들에게 따뜻한 겨울 외투를 선물하고 싶다는 한 성도의 후원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2013년부터 네팔 HIV 감염 아동 60여 명에게 건강검진, 식량, 생필품, 학용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수원 성경일독학교 참가자 모집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성경일독학교 신약편'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2021년 1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평일 오전 9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성경일독학교는 역사적 순서에 따라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성경일독학교 신약편'에서는 매주 신약 성경을 5장씩 읽고 정리한다. 회비는 무료. 문의: 010-9283-7871

차세대 새친구 온라인 등록

차세대 온라인 가족카드 작성

차세대사역본부가 온라인으로 새친구 등록을 받고 있다. 온누리교회 차세대에 등록을 희망하는 학생 및 보호자는 '차세대 온라인 가족카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https://forms.gle/khhe9wSjKyDCHvRp8) 또는 QR 코드로 접속할 수 있다.

차세대 온라인 가족카드에 접속한 다음 소속 캠퍼스, 학생 정보, 대표 보호자 정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만 14세 미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등을 입력하면 된다. 그 다음 차세대 전임교역자가 새가족 정보를 확인하고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한다. 담당 교역자는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하고 나서 부서 편입 등을 진행한다. 차세대 교사는 nCare에 학생 정보를 등록하고, 새친구 반 과정을 실시한 다음 소그룹 반배정 등을 하면 된다.



*차세대 온라인 가족카드 신청 QR

두란노 온라인 북스토어 개설 및 운영

도서 1만 원 이상 주문하면 무료배송

두란노서점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 '두란노 온라인 북스토어'를 개설 및 운영하고 있다.

두란노 온라인 북스토어에서는 <생명의 삶>, 하용조 목사 저서, 이재훈 목사 저서, 공동체 양육 필독서, 온누리신문 추천 도서, 목회자 추천 도서 등을 판매하고 있다. EM제품 스테디 상품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두란노서점 온라인 북스토어에 있는 도서를 1만 원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배송해 준다.

두란노 온라인 북스토어는 홈페이지(www.duranno.com/store/onnuri)로 접속하면 된다. 문의: 02-796-2310

두란노어머니학교 개설 신청

두란노어머니학교가 2021년 상반기 두란노어머니학교 개설 신청을 받는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싶은 교회와 단체가 대상이다. 두란노어머니학교는 기독교 단체뿐만 아니라 관공서와 기업, 다문화센터, 교도소 등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개설을 원하는 교회와 단체는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

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물품 및 개설 메뉴에 있는 '개설 신청하기'란을 클릭하면 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는 '일반 어머니학교', '열린 어머니학교', '특수 어머니학교', '해외 어머니학교' 등이 있다.

문의: 02-2182-9114

